

터키 해외연수 보고서

2013. 3

김익찬 시의원

터키 해외연수를 갈 시기가 외유성공무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다.이런 환경이었기에 얼마전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회여행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기도 했다.결국 부결되고 말았지만...그래서,해외연수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다.

이번 해외연수 준비는 많이 부족했다.1인당 18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해외연수를 가려면,교육분야든,복지분야든,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나라를 선택해야한다.

그러나,예산의 부족 문제가 있다보니 무엇을 볼 것인가?를 먼저 정한 것이 아니라 180만원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부터 정해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또한,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이기에 전반기에 다녀오려고 했기 때문에 사전준비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

결국은 180만원의 예산으로는 아시아권밖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개인당 50만원의 예산을 각자 부담해서 터키로 정했다.

터키로 정한 후,터키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일부에서는 터키는 관광지기 때문에 외유성 여행이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도,최소한 의원으로써 외유성으로만 채워져서는 안된다는 평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외유성으로만 일정을 잡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나,한계도 있었다.

터키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 잡았던 것은 보도블록이었다.역사적으로 수년동안 보행도로에도 땅이 숨쉴 수 있도록 콘크리트가 아닌 돌을 깨서만든 것 같은 보행보도가 있었다.



우리 광명시에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주도로가 아닌 공원이나 한산한 곳에는 터키의 보행도로의 보도블록을 벤치마킹해 볼 수있다고 본다.

두번째는 신호체계가 마음에 들었다.캐나다,미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다.고속도로처럼 4차선이상 넓은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을시에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나타나기 약100미터전에 먼저 횡단보도가 있다라는 표시를 점멸등으로 지시해주고, 그 다음 횡단보도에는 몇초를 기다려야 하는지 신호등 위에 초(a second)가 점멸된다.



▶우리 광명시의 경우 일부의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지만,운전자들이 몇초를 기다려야 하는지 ? 점멸등은 없다.터기에서는 보행로를 사용하는 사람뿐만 이 아니라 운전자가 몇초를 기다려야 하는지 빨간색으로 초(a second)가 점멸된다.



▶ 횡단보도 약100미터전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신호등을 이렇게 표시하거나 점멸등으로 사전에 표시해서 알려준다.우리나라는 도로면에 표시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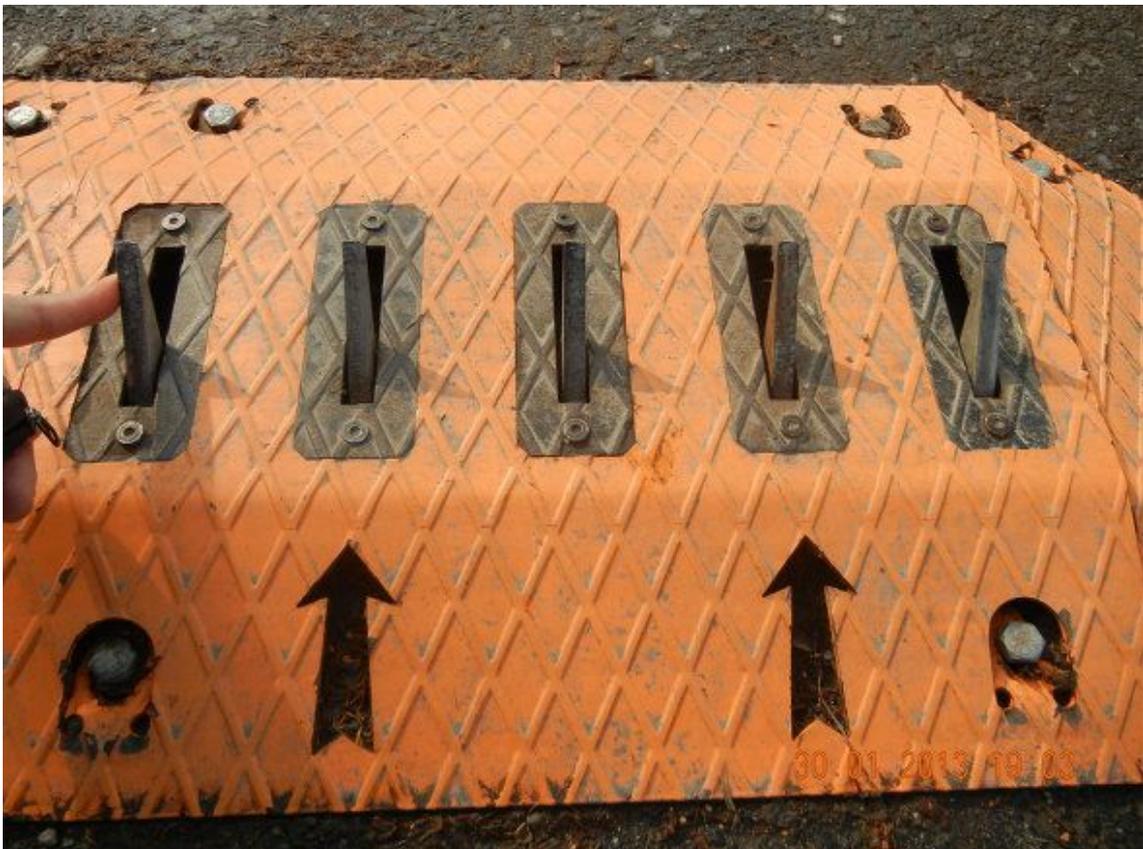
광명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횡단보도 및 운전자에게도 몇초를 기다려야하는지 초(a second)가 표시되는 점멸등을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면 한다.

3번째는 일방통행길의 주차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다.우리나라에서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적용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방통행길이면서 유료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다.일단 들어갈때는 타이어에 손상이 가지 않지만,역주행으로 나올때에는 타이어에 손상을 입히는 장치가 되어있어서, 일방통행이면서 2차선정도의 좁은 주차장에서는 적용이 가능할 듯싶었다.

다만,보행자가 주차장 일부를 이용할 경우는 보행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역주행으로 나오는 차량의 무게(약1톤이톤이상)가 가해졌을 경우에 (편이 있는 약3~5미터 앞에서)만 편이 나오도록 개선해서 사용하면 좋을 듯 싶었다.(예를들자면,대전차 지뢰처럼 몇톤의 압력이 가해져야만이 터지는 것처럼,차량무게만큼의 압력이 가해졌을때 편이 나오도록한다면, 보행자에게는 피해가 없을 듯하다)







4번째, 터키의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고풍적인 건물이 아주 많았다. 고풍스런 건물 사이에 칼라색깔의 현대식 조립식 화장실이 눈에 확 띄게 설치되어 있었다.



▶ 주변 환경과 부조화



딱,보고 느낀 것은 건물을 지을때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들자면,야간경관조명을 새롭게 달 경우나,새로운 공공건물을 지을때,이동식 화장실을 지을때까지도 광명시 경관 조례를 반드시 준수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어야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사진처럼 부조화롭게 지을 경우의 단점도 배울점이 있었던 같다.

다섯번째는 터키 공원의 쓰레기통의 경우, 사소한 것이지만,눈에 들어왔다.

쓰레기통이 비나 눈이올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 위에 놓여있다. 그러나,쓰레기통과 뚜껑사이엔 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때에도 쉽게 버릴 수 있지만,비가오나 눈이올때에도 쓰레기통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있다.



▶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비닐로 되어있기도 하지만,그 부분이 스테인레스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또,쓰레기를 수거할때에는 간단하게 뚜껑을 좌우로 돌려서 쓰레기통을 비울 수 있

도록 되어있다(쓰레기를 담는 그릇이 스테인레스인 경우).우리 광명시 공원등에 설치되어있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개선해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여섯번째,터키 공항 주변 도로에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도로 중앙분리대에 다양한 꽃으로 가득 채워져있었다.터키에는 추운날씨에도 꽃이피나? 터키는 봄이나?라고 할 정도로 주변 곳곳의 도로중앙이나 주변에는 꽃으로 가득했다.

그 꽃들 때문에 터키에 대한 좋은 인상이 남도록 해주는 계기도 되었던 것같다.그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낭비라고도 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명 ktx주변도로에 겨울철에 꽃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일곱번째,터키의 지하도시 데린구유라고 불리는 지하 20층의 지하도시가 있다. 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종교탄압시기에 기독교인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다.







피난처로 사용했기 때문에 한사람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로 되어있고,층마다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장소,밥을 해먹을 수 있는 장소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 지하도시를 보면서 광명시 가학광산이 생각이 났다.이 곳은 터키에서도 역사적으로 애기꺼리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이 곳이 지하동굴만있고,역사적인 애기꺼리가 없었다면,어땠을까? 생각해봤다.지금처럼 관광지화 되었을까?

이 곳을 보면서,광명시 가학광산동굴을 생각해보는 계기가되었고,가학광산동굴을 터키의 데린구유라고 불리는 지하20층의 지하도시처럼 관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수번 생각도 해보았지만 답이 나오질 않았다.

왜냐면, 현재 가학광산의 경우는 역사적인 애기소재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가학광산동굴을 관광지로 만들기위해서는 주변의 상권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애기꺼리,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지하동굴을 보면서 가학광산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애기꺼리,역사적인 꺼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인 애기꺼리 없이는 가학광산동굴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본다.교육예산 복지예산 대신에 가학광산에 예산을 약1천억정도 투자하면
모를까,그런데,누가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겠는가?

-끝